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중요성

대한산업보건협회 제16회 산업보건학술제

글 윤혜원 사진 김재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제16회 산업보건학술제가 5월 30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에서 열렸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사옥 개소식 및 창립 77주년 기념식 행사 2부에서 마련된 이날 학술제는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연구원에서 주관한 제16회 산업보건학술제에는 약 200명 이상이 사전 등록했으며, 현장등록을 포함해 250여 명의 사업장 노·사 관계자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박영수 보건안전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산업보건학술제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정지연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의 축사와 기념 촬영이 계속됐다.

박영수 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중대 로드맵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보건의 큰 방향을 전환했다. 안전이 곧 문화가 되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성된다”라고 말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수동적 법규 규칙

중심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번 학술제가 안전보건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 가 될 것이다"라며 최고의 보건안전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노력을 전했다.

위험성평가 강조한 정부의 산업보건 로드맵

제16회 산업보건학술제의 주제는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진행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연구원 조기홍 실장이 맡았다.

발제에 나선 박종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과장은 '정부의 산업보건 로드맵'을 발표하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이슈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지만, 보건에 관한 인식은 아직도 낮다. 안전과 보건이 교집합이 되고 그 중심에 메시지가 나와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법령 체계 개정, 사전 예방 체계 설정 등을 꼽으며 "산업보건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황인호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컨설팅국 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알렸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의 위험성평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보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전문화, 산업재해 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제한 문광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에 대해 소통하고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며 기업의 안전문화를 만드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에 SK하이닉스 팀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산업보건 활동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학술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한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